

유명 브랜드 할인행사 상품... 알고 보니 '가품'

광주 곳곳서 '패션그룹 본사 물류창고 대개방' 진행 행사장 비치 물품들 위조상품에 '소비자 주의' 필요

국내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이 '가품'(짝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명품 최초 공개', '패션그룹 본사 물류창고 대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지역 유명 호텔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판매된 유명브랜드 상품들이 위조상품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폐점 할인 등을 명목으로 할인 판매하는 옷은 가짜 상품일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서구 차평동 한 호텔에서 '패션그룹 본사 물류창고 대개방' 행사가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스포츠, 캐주얼, 골프 등 국내외 유명 15개 브랜드 의류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홍보가 이뤄졌다.

특히 지역 내 유명 호텔에서 진행된 만큼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끌어 모으며 행사 기간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장 곳곳에는 '본 행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허위 브랜드 및 불법복제(짝퉁) 판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공고한다'는 주최측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어 고객들의 신뢰를 더 커졌다.

하지만 문제는 행사장에 비치된 물품이 모두 정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행사 진행 이틀째인 15일 서구청, 서부서 등은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 등은 해당 의류 등에 대한 진품 여부 의뢰를 진행해 최근 '가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행사를 주관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행사장에서 압수한 샘플 의류 모두 가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도 경찰 조사에서 '전시·판매된 상품이 정품이 아닌 서울 소재 도매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해당 호텔을 비롯해 영주체육

관 등에서도 폐업 등을 이유로 유명 브랜드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해당 행사를 진행한 업체가 정식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사장을 대관해 준 호텔 측 관련자도 도마에 올랐다.

호텔 측 관계자는 "호텔 내 시설 대관을 진행할 때는 기간, 비용 등에 대해 논의 후 계약을 체결해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지만 정상 사업자 여부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뒤 행사 관

계자들에게 상황 전달을 요구했고, '문제가 없다', '잘 해결하겠다'는 말만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정식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폐점할인 등의 명목으로 큰 폭의 할인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 시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비자 불신이 패션 업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의 투명성 거래와 짝퉁 관련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기업 지원 사업 추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콘텐츠 기업의 창작 역량 강화와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6일 '2026년 전남콘텐츠코리아랩 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기반 콘텐츠 IP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해 초기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콘텐츠 IP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3개 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전남 소재 창업 3년 미만 콘텐츠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전 전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사업 접수는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전남지역 창작기업들이 보유한 콘텐츠 IP가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창작기업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01404@

"디지털 인재 10년"...스마트인재개발원 새 도약

AI·빅데이터·SW 교육 지역 혁신 교육기관 자리매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성장 성과를 돌아보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도약을 의지를 다졌다.

16일 스마트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설립된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공유와 공감'의 가치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을 운영하며 지역 기반 디지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는 평가다.

이번 10주년 행사는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걸어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짚고 '함께 온 10년, 함께 갈 미래'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이러한 '공유와 공감'의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산

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왔다.

최근 AI와 디지털 전환 정책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스마트인재개발원은 AI·데이터·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해 지역 산업 성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디지털새싹 사업'에도 참여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공교육 기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aT,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신고센터 개설 운영...사업 제한 등 강력 처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16일 aT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

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은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날부터 개설, 운영에 돌입한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aT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을 둔다. 또 폐널터를 부과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롯데마트, 봄철 대표 과일 할인전 롯데마트는 오는 18일까지 봄철 수요가 높은 오렌지, 감귤, 참외에 대해 할인전을 선보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몰점 잠실점 과일 코너서 직원이 봄 과일 할인전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